

삼나무 딸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옛날 어느 곳에 낡편과 단둘이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갖기 간절히 원했지만, 이상하게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를 보면 일부러 말을 걸고, 같이 놀아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기 인형을 만들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 인형을 그네에 태우고, 그네를 흔들어 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낡편은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는 집안일은 내뺨개친 채 온종일 인형과 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저녁도 차려 주지 않았습니다.

낡편은 보다 못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몇 살이야? 그 나이에 인형을 가지고 놀아?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 안 꼴이 엉망이잖아.”

낡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여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손을 놓고 인형하고만 놀았습니다.

깊은 밤에는 굳히 자는 낡편을 깨우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보세요. 아기가 이상해

요. 어디 아픈가 봐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느 날 밤, 낡편은 하도 화가 나서 창 밖으로 인형을 핵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인형은 멀리 날아가 숲길에 툭 떨어졌고, 놀랑게도 그 자리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삼나무였습니다. 삼나무는 은으로 되어 있으며, 황금 술방울을 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다니는 왕자가 삼나무 아래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삼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왕자는 잠자리에 들 때는 머리맡에 금 등잔을 밝히고, 발치에 은 등잔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면 먹으려고 접시에 과자를 담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의 잠자리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금 등잔이 발치에 있고, 발치에 있던 은 등잔이 머리맡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시에 담아 둔 과자도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간밤에 도둑이 들었나?’

왕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짓인지 알아보려고, 그 날 밤 자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깨어 보니 또 금 등잔과 은 등잔의 위치가 바뀌고, 과자 접시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오늘 밤에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겠다.’

왕자는 잠을 쫓으려고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 밤 자리에 누워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왕자는 바늘을 꺼내 새끼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잠이 금방 달아났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누군가 천막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아름다운 긴 머리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왕자의 머리맡에 있는 금 등잔을 왕자의 발치로 옮기고, 왕자의 발치에 있는 은 등잔을 왕자의 머리맡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접시에 담긴 과자를 먹었습니다.

처녀가 천막에서 나가려 하자, 왕자는 벌떡 일어나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죠?”

왕자가 묻자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삼나무 딸입니다.”

왕자는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매일 밤 저에게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바빠 가지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놀다가 가세요.”

“매일 밤 올 수는 있지만,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어머니에게 혼나요. 어쩌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천막에서 놀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세요.”

처녀는 그 날 밤부터 날마다 천막을 찾아왔습니다. 왕자와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고 새벽에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궁궐에서 왕의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왕자님, 임금님께서 여행을 마치고 사흘 안에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왕자는 전갈을 받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삼나무 딸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왕자는 삼나무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도 저와 함께 궁궐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삼나무 딸은 왕자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자신도 왕자와 헤어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삼나무 딸은 왕자와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천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왕자는 새근새근 자는 삼나무 딸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동안 즐거웠어요. 잘 있었어요.”

왕자는 삼나무 딸의 볼에 입을 맞추고 병사들과 궁궐로 향했습니다.

느지막이 눈을 뜬 삼나무 딸은 왕자가 이미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천막에서 나와 보니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이거 야단났네! 어머니께 꾸중을 들겠어.”

삼나무 딸은 허둥지둥 삼나무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늦지 않을 테니 들여보내 주세요.”

그러나 삼나무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녀?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으니 썩 거져라!”

삼나무는 끝내 딸을 쫓아 버렸습니다.

삼나무 딸은 엉엉 울면서 방랑의 길에 나섰습

니다.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삼나무 딸은 길에서 양치기와 마주쳤습니다.

“양치기님, 부덕이 있는데요. 제 옷과 바꿔 입을 실래요?”

“그러지요, 뭐.”

양치기가 승낙하여 삼나무 딸은 자기 옷을 벗어 주고 양치기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왕자님이 사시는 나라로 가자. 먼밭치에서라도 왕자님을 보고 오는 거다.’

삼나무 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왕자가 사는 나라로 갔습니다.

궁궐은 그 나라의 서울에 있었습니다. 삼나무 딸은 물어 물어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삼나무 딸이 궁궐 주위를 서성일 때, 마침 왕자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군가?”

왕자는 삼나무 딸이 양치기로 변장하여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치기입니다. 황금 술방울이 달린 은빛 삼나무가 있는 동네에서 왔지요.”

“오, 그게 사실이나? 궁궐로 들어가자. 네가 사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들려다오.”

왕자는 크게 기뻐하며 양치기를 궁궐로 들여보냈습니다.

양치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자님은 삼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계셨지요? 왕자님이 떠나신 뒤, 천막 안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아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왕자는 양치기의 말을 듣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는 궁궐에서 살며 내게 종종 너희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알겠습니다, 왕자님.”

그리하여 양치기는 왕자의 궁궐에서 살게 되

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지? 좋은 신부감이 있으니 혼례를 치를 준비를 해라.”

이 때 왕자는 사랑하는 삼나무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에, 그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궁궐 마당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때 양치기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양치기 옷을 벗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자님 곁에 머물 수 없어. 왕자님의 행복을 빌어 주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자.’

삼나무 딸은 죽기로 작정하고, 자기 방에 있는 그넷줄을 목에 감았습니다.

한편, 왕자는 결혼식에 양치기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 갔지? 자기 방에서 잠들어 버렸나?’

왕자는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양치기의 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양치기의 방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왕자는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앗!”

왕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넷줄로 목을 매어 죽어 가는 삼나무 딸을 본 것입니다.

“아가씨!”

왕자는 창문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사를 불러 삼나무 딸을 살렸습니다.

“바보 같으니…….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밝힐 것이지……. 나는 이제 당신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왕자는 신부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삼나무 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